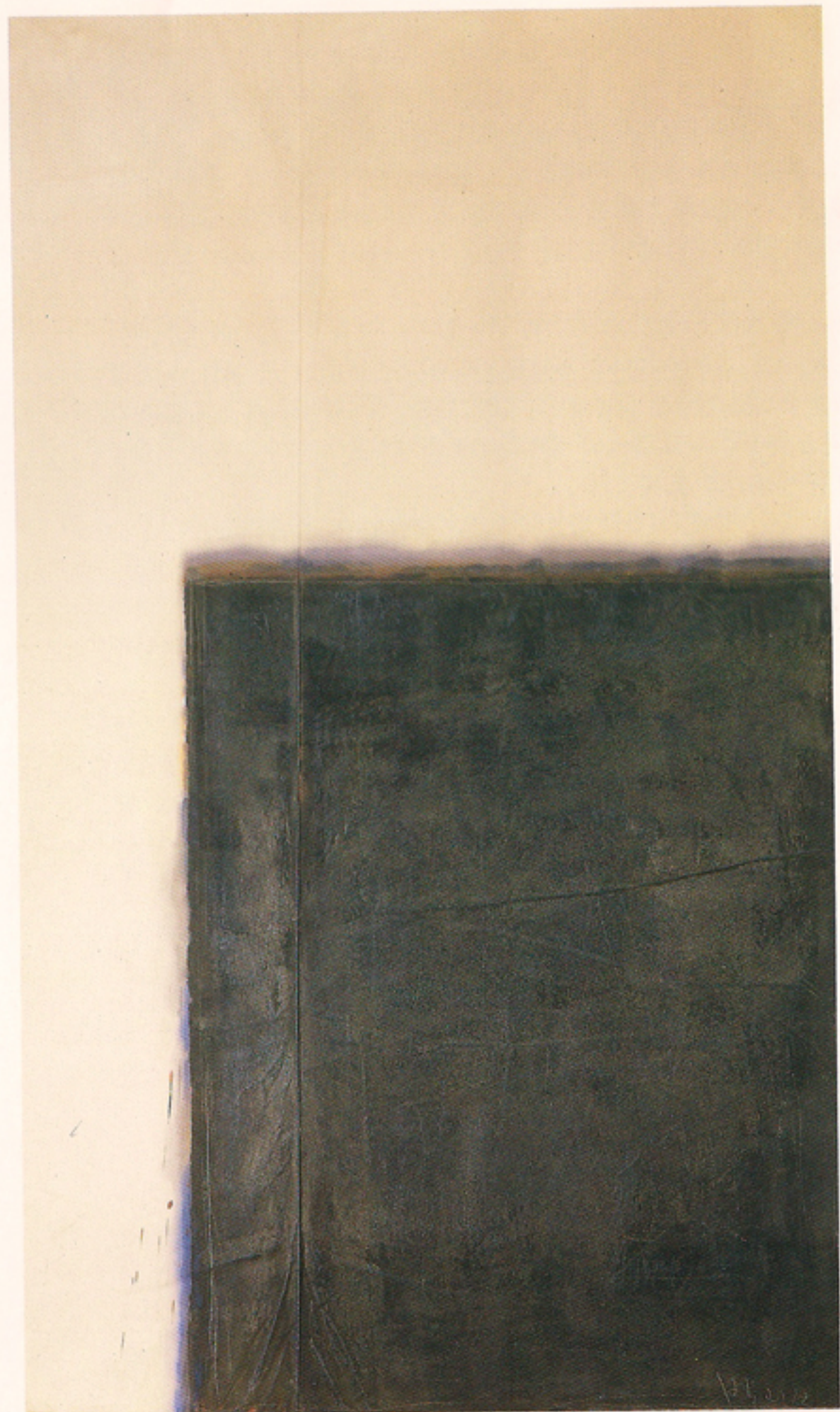


## 물질의 감성화 : 박광진

80년대는 아주 떠들썩한 시대이다. 그리고 약간은 들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림의 요란함은 사회적 불안과 동요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건성으로 그리기의 풍토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그림은 얼렁뚱땅이고 대신에 말과 주장을 앞세워 초점을 흐트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주장에도 그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회화의 풍부하면서도 궁극적인 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외침들이 난무하는 건 예술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을 도외시하는, 문제의 범주들을 착각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박광진은 80년대를 조용하면서 느리게 반응한 작가중 한명이라 할 수 있다. 어찌보면 아예 주위를 거들떠보지 않은 채 자신만의 회화적 탐구를 위해 분투한 작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와의 차단 내지는 거리두기는 쉽게 작품속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은 다소는 가라앉아 있고 또 다소는 잔잔한 감성을 나타내고 있다.

작가는 "빛"의 자취와 흐름을 좇아 그것의 갖가지 인상들을 화면에 주어담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빛과 물체가 만날 때 생기는 빛의 여러 상태에 관심을 두어 화폭에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작가의식을 투영한 자기공간을 만든다" (작가노트 중에서)는 게 작품의 기본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에게 빛의 인상들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다. 발산되는 빛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흡수되고 대상에 동화되는 상이점을 구획짓는 이등분 내지는 삼등분의 도상을 통하여 자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재료감이다.

그녀가 시도하는 빛의 자기화는 석분과 젯소 그리고 아크릴릭 등을 배합하여 착지작업을 한다음 여기에 다시금 연필과 파스텔의 필선을 넣어 빛의 정서를 불어넣는 과정을 거친다. 결과적으로 화면에서 분출되는 것은 영롱함, 투명성, 해맑음, 내밀함 따위의 순수시각적 현상이다. 그녀의 작품은 화면형성에 있어서 여러 기하학적 요소들을 개입시키기는 해도 전혀 딱딱하거나 논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빛의 풍부하고도 신비한 영향 탓인지 아니면 작가 자신의 영향 탓인지 은밀한 서정이 넘쳐흐르는 걸 볼 수 있다. 물질은 정신으로 화하고 화면은 빛의 마당으로 화하며 필선들은 부드러운 선율으로 바뀌 상상력의 보고 내지는 풍족감의 터전을 일구어낸다. 시선을 잡아끌면서 빛의 공간감을 흠뻑 맛보게 하는 그러면서도 틀잡힌 방법으로서 물성의 감성화를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대상에의 해석의 참신함을 우리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PARK, Kwang-Jean